

## 잡초의 꿈

이 상 구(시인)

털어도 털어지지 않는  
자욱이 쌓인 먼지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여름 피약별 보도 불력 틈새

찌는 여름 날  
누리지 못한 시원한 그늘  
난폭한 발에 짓밟혀  
아무는 날이 없는 상처

자식들에게  
화려하게 핀 꽃으로  
구경 한번 시켜주지 못한 꿈  
어려운 환경을 극복  
끈질긴 생명력으로  
꽃 피우는 그날을 기다린다

-----

먼지만 뿌연 이곳 피약별 행인들의 발에 밟혀 상처는 아물 날이 없고, 언젠가 피워낼 꽃을 보여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고 빈다. 꽃 피우는 그날이 당장 오는 것도 아니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견뎌내야만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거나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는 옛말뿐이다.

화자는 자신이 놓인 상태나 자리를 사물과 비유를 한다. 매체로 선택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기분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얼토당토아니한 것에 비유할 수는 없다. 극복한 뒤에 꽃을 피우겠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윤 제 철)

## 노신사가 차리는 아침식탁

이 종 만(수필가)

근 10년 전쯤 유태인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사는 한 직장여성의 부부생활을 TV로 본 적이 있다. 미취업자인 남편이 집안일을 전담하고 부인이 바깥일을 했는데 주방에는 얼씬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떨까? 맞벌이 부부는 물론, '전업주부'와 사는 '직업인'도 틈틈이 아내의 조리·설거지를 돕는 등 자연스럽게 가사에 동참하는 것 같다.

남성의 가사 분담이 늘어나면서 여성우월주의 시대로 간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남성의 목소리가 컸던 권위주의시대를 살아온 이른바 구세대 여성들에게는 취사·청소·빨래와 제사·명절 준비 등의 가사부담이 여전히 과중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류는 출현 이래 아주 짧은 기간의 '일부다처와 남녀평등 시대'를 빼고는, 오랫동안 일처다부의 여존남비 시대를 살았다. 저녁에 돌아온 남자의 사냥물이 시원치 않는 등 맘에 들지 않는 경우 아내는 어두운 동굴 밖으로 남자를 내쫓기도 했을 것이다.

이 땅의 아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트위터(Twitter) 대통령으로 알려진 작가 L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내가 그리해도 자신의 아내만은 절대로 이혼하자고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장담했었다. 수년 후, L은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청산하자!"는 부인에게 애걸하여 졸혼(卒婚)으로 마무리했다.

'권위적인 J'의 부인은 70대 초에 생사를 넘나들다 퇴원 후, "군림해온 남편 밑에서 가정부처럼 살다 갈 수 있다. 바꿔 살자"고 담판을 벌였다. 집안일은 남편이 맡고 자신은 자유·여유롭게 살겠다고 이혼 배수진을 친 것. J는 이혼을 피하려 '우려 반 장난 반'으로 승낙했다. 부인은 자식들을 불러 부부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혼인신고 대비 이혼율은 50%에 육박한다. 남편의 퇴직을 맞아 이혼하는 사례는 물론, 70대와 80대 여성의 황혼이혼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아내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결혼 당시,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 준다'는 나의 서약은 감언이설이었다. 내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웅졸한데다 허점투성이인 사람에게 수차 이혼 요구를 했을 것이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갔을 것이다.

주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많은 실망만을 안겨준 나는, 달리 해줄게 없어 가사라도 덜어주려 ‘하루 두 번 설거지’를 실행했다. 아내는 ‘원한 건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받아들였다. 나는 무슨 잘한 일을 한 것처럼 내심 기뻐했다.

하지만, 퇴촌 산골에서 이웃 80대 초반의 노신사를 만나면서 얼굴을 붉혀야 했다. 그는 부인이 좋아하는 전원생활을 위해 근 20년 전, 제2 주택을 퇴촌 청정지역에 마련했고 부인은 건강을 회복했다. 노부부의 300여 평 정원은 부인이 가꾼 온갖 화초와 그가 취미로 빚은 예술도자기들로 장관을 이룬다.

노년의 그의 삶은, 나와 달리, 기타 연주 등을 통한 사회봉사와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돋보였다. 그와 그의 부인은 낮 설어 서떡해하는 우리부부를 먼저 찾아와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 지 물었었다. 훗날, 그는 “기타를 즐긴다면 조율해주겠다”고 했다. “감나무가 자라지 않을 정도의 연중 평균기온이 낮은 이곳에서의 동절기 수도관 동파를 막아야한다”며 설비업자들도 울고 갈 방식의 예방조치를 해줬다. 전기·보일러시설까지 점검하다 위험부분이 나오자, 약 3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부품을 가져와 교체해줬다. 그가 규모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음을 후일 알게 됐다.

그에게 걸려온 전화로 그를 교회 장로로 어렵혔으나 그는 한 번도 ‘직분’을 내비치거나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군더더기 없는 담백·온화한 언행이 은은한 향기를 뿜는 신앙인의 품격을 드러냈다.

최근 우리 부부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내 얼굴은 노신사로 인해 한 번 더 붉어졌다. “부부는 노년에 서로 매임 없이 좋아하는 삶을 즐겨야한다”며 이를 실천-전원생활을 좋아하는 부인은 주로 전원에서, 그는 주로 도회에서 산다. 대체로 주말을 함께 한다-해왔음을, 아침잠이 많은 부인을 위해 아침 식탁을 자신이 차려왔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인의 영향을 받았다. 준비와 설거지가 쉽다”며 은근히 내게도 권했다. 우리 집 사 람은 미소를 머금고 경청했다. 그가 아침식탁에 올리는 요리의 레시피를 공개했다.

1인당 사과 반쪽과 계란 1개, 김치 약간, 밥 조금이 기본. 각종 채소를 찜기에 둥글 게 넣고, 때때로 그 중앙에 얇게 자른 육류를 놓은 후 10~15분간 찜다. 평소에 만능소스를 몇 가지 준비해둔다. 찜 채소와 고기를 소스에 찍거나 소스와 버무려 먹는다.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신사는, “위 조리법으로 간단하게 식품본연의 맛, 영양, 소화흡수의 세 가지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집 아침 식탁도 그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 취사와 상차림을 내가 맡을 수 있을까? 아직 자신이 없다.